

중학교 영재학생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필요성 탐색

진석연 · 차주환 (건국대학교)

김미숙 · 조석희 · 윤초희 (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영재학생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특성들과 유능한 리더의 특성들 간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 예들 가운데에는 언어 감각과 사회성이 좋고, 미래 지향적이며,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책임감이나 자아 충족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점 등이 포함된다(Plowman, 1981; Black, 1984; Karnes & Bean, 1996).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재학생들이 성장해서 각 지역 및 국가 또는 국제적 수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리더를 판별하거나 영재학생들의 리더십 잠재성을 계발하기 위해 이렇다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oster 와 Silverman(1988)은 학교가 리더십의 기초를 이해하고,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리더십교육을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재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또Lindsay(1988)는 영재교육에 있어서 리더십은 큰 논쟁거리였을 뿐 현상에서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Florey 와 Dorf(1986)도 영재학생의 교육 과정에 리더십을 포함시킨 영재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일반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영재교육현장에서도 청소년기 학생들의 리더십을 진단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을 위해 리더십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리더십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재학생들의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이들의 리더십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Karnes 와 Chauvin (2000a)이 개발한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Leadership Skills Inventory: LSI)가 영재학생의 리더십 진단과 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본 도구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수준에 이르는 학령기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된 보기드문 검사로서, 학생들이 각자의 리더십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리더십의 여러 영역들 중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를 통해 특정 학생의 리더십 계발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단점들이 확인되면, 교사가 해당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LDP)(Karnes & Chauvin, 2000b)이 함께 개발되어 있어 교육적 유용성이 대단히 높은 평가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을 위한 진단도구로 개발한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Leadership Skills Inventory: LSI, Karnes & Chauvin, 2000a)'를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의 리더십 잠재성을 판별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로 번안하고, 번안된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검사도구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번안된 검사도구를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실시하였을 때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이 미국 학생들에 비하여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중학교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번안한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Leadership Skills Inventory)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2.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 2-1. 미국학생들의 규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 2-2. 미국학생들의 규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일반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 2-3.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리더십 기술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영재집단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K지역 교육청에서 다단계 영재 판별 과정을 통하여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50명으로 이들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 1차로 선발된 학생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통한 2차·3차 선발을 거쳐 면접 및 구술고사로 최종 선발했다. 또한 일반학생 집단으로는 같은 서울지역에 있는 중학교 중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학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 50명을 표집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지는 총 50부가 수합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7부를 제외한 총 43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 영역간 상관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미국 학생들의 규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리더십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미국학생들의 규준을 활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이 리더십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양호도

1-1. 검사문항 번역의 적절성 확인

본 연구에 사용할 검사 도구를 만들기 위해 Karnes 와 Chauvin(2000a)이 미국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잠재력과 현재의 수행능력의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리더십 기술 검사 도구(Leadership Skills Inventory, LSI)를 한글로 번안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5인의 검토를 통해 그 내용과 번역에 대한 타당성을 1차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번역작업을 거친 검사 도구를 한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모두 능통한 이중 언어 구사자에게 역번역 시킨 후 원래의 영문 문항과 역 번역된 문항을 비교하여 의미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을 찾아내 재번역을 실시하였고, 해당 문항의 번역에 문제가 없는지 앞서의 전문가들에 의한 재검토를 거쳤다.

1-2.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신뢰도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의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영역별 문항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에게 실시한 리더십 기술 검사 도구의 영역별 전체 문항 내적 신뢰도는 .96와 .98로 모두 높게 나왔으며, 전체의 경우 .97로 역시 높게 나왔다. 따라서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1-3.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하위영역 구성에 대한 검토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 모두의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의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리더십의 기초영

역과 자기계발 영역($r=.37, p<0.01$), 그리고 리더십의 기초영역과 의사결정영역($r=.46, p<0.01$)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r=.5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하위 영역간의 상관이 높음에 따라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하나의 거대요인(Eigenvalue=30.98, 설명력=24.78%)만이 나타날 뿐 9개의 리더십 하위영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비교

2-1. 미국 학생들의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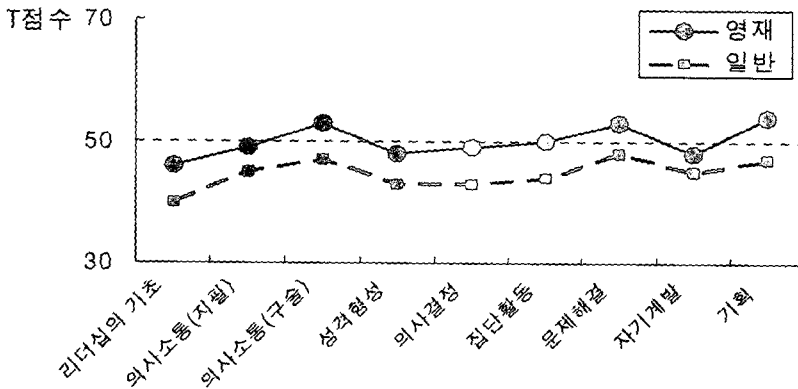
[그림1]은 미국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은 미국의 일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리더십 기술 수준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은 구술적 의사소통 영역($t=2.01, p<.05$), 문제해결 영역($t=3.04, p<.01$), 기획 영역($t=3.28, p<.01$)에서 미국 일반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우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이 구술적 의사소통영역, 문제해결 영역과 기획 영역에서 미국 일반 학생들보다 리더십 기술 수준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구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은 리더십의 기초 영역($t=-2.09, p<.05$)과 성격형성 영역($t=-2.17, p<.05$)에서 미국의 일반 학생들보다 수준이 낮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미국 일반 학생들이 리더십의 기초 영역과 성격형성 영역에서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보다 리더십 기술 수준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현장에서 리더십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 즉, 우리나라 영재 학생들에게 리더십의 유형과 이해의 내용을 담은 리더십 기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또한 영재 중학생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필적 의사소통 영역, 의사결정 영역, 집단활동 영역, 자기계발 영역에는 미국 일반 학생들과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2. 미국 학생들의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일반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

아래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일반중학생은 미국의 일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모든 리더십 기술 영역에서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리더십의 기초영역($t=-5.07, p<.001$), 지필적 의사소통영역($t=-4.68, p<.001$), 구술적 의사소통영역($t=-2.29, p<.05$), 성격 형성 영역($t=-4.74, p<.001$), 의사결정 영역($t=-4.36, p<.001$), 집단활동 영역($t=-4.48, p<.001$), 자기계발 영역($t=-3.52, p<.001$)에서 미국 일반 학생

들과 우리나라 일반중학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국의 일반 학생들은 우리나라 일반중학생들보다 리더십의 기초 영역, 지필적 의사소통 영역, 구술적 의사소통 영역, 성격형성영역, 의사결정 영역, 집단활동 영역과 자기계발 영역에서 리더십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중학생에게 리더십의 기초 영역, 지필적 의사소통 영역, 구술적 의사소통 영역, 성격형성 영역, 의사결정 영역, 집단활동 영역, 자기계발 영역에서의 리더십 계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 중학생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전혀 리더십의 개념이나 기술에 관한 교육의 부재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교과수업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계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기술 수준을 신장시켜야 하겠다. 한편 기획영역에서는 미국의 일반 학생들과 우리나라 일반 중학생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2-3.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리더십 기술 수준



[그림 III-1]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리더십 기술 수준 비교

위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과의 리더십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재 중학생이 일반 중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리더십 기술들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계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리더십의 기초($t=2.59, p<.01$), 지필적 의사소통($t=3.29, p<.001$), 구술적 의사소통($t=3.04, p<.001$), 성격 형성($t=2.70, p<.01$), 의사 결정($t=2.51, p<.05$), 집단 활동($t=2.62, p<.01$), 문제 해결($t=2.97, p<.01$), 기획($t=3.4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영재 중학생들에게는 일반 중학생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혹은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 중학생의 경우, 영재 중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때 각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보이는

학생이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적절히 번안된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진단도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미국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영재 중학생들은 미국의 일반 중학생들과 비교하여 리더십 기술 수준에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일반중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일반 학생들보다 리더십 기술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은 우리나라 영재학생들의 리더십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하면 저절로 리더가 되리라는 기존의 기대는 유효하지 않으며, 치열한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려면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Black, J. D. (1984). *Leadership: A new model particularly applicable to gifted youth*(Report No. EC171399). Indiana: Handicapped and Gifted Children Clearinghous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53 990)
- Florey, J. E., & Dorf, J. H. (1986). *Leadership skills for gifted middle school stud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73 404)
- Foster, W. H., & Silverman, L. (1988). Leadership curriculum for the gifted. In J. Van Tassel-Baska, J. Feldhusen, K. Seeley, G. Wheatley, L. Silverman, & W. Foster (Eds.),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gifted learns* (pp. 356-360). Boston: Allyn & Bacon.
- Karnes, F. A., & Bean, S. M. (1996). Leadership and the gifted.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9(1), 1-12.
- Karnes, F. A., & Chauvin, J. C. (2000a). *Leadership Skills Inventory*. Scottsdale, AZ: Gifted Psychology Press.
- Karnes, F. A., & Chauvin, J. C. (2000b).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cottsdale, AZ: Gifted Psychology Press.
- Lindsay, B.(1988). A lamp for Diogenes: Leadership, giftedness, and moral education. *Roepers Review*, 1, 8-11.
- Plowman, P. D. (1981). Training extraordinary leaders. *Roepers Review*, 3, 13-16.